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제 38 - 41 호

2021년 10월 24일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 평양노회 정기회의(19일)에서 담임목사(정재훈목사) 청빙 건이 결정되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에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연석회의 후에 이어서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체전체회의(정관 개정 결의)와 총회를 이어서 모입니다.
-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 최연숙 신랑 이준상 10월 30일(토) 12:30 정읍 아크로웨딩홀
- 꾸러기학교 졸업여행이 27일(수)-29일(금) 강원도 강릉에서.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26일(화)-28일(목) 울진 해파랑길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주님의 편

나뭇잎이 가을 색으로 물들고, 광활한 하늘이 마음속 무언가를 자극할 때가 되면, 학교들은 예비 졸업생들의 입시 또는 진로로 바빠집니다. 올해 멋쟁이학교에서도 대학을 준비하는 멋쟁이 학생들이 있고, 나름대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론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고, 언젠가 맞이할 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은 언제봐도 펍 대견합니다. 저도 뒤에서 조금씩 거들기도 하다가, 문득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장신대에 가고자 했던 학생들은 몇 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입학도 했기 때문이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장신대로 가겠다는 학생들을 보면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한 명의 후배가 생긴다는 기쁨 외에도, 되돌리기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하는 막연한 감상을 말이죠.

여타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신대에 가려는 사람의 지원 동기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장신대는 '(기독교)신학대'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력서에 남아있는 한 줄의 대학 이력은, 이후 어떤 길을 걷더라도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내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의 안경으로 재단해보겠지요. 때론 이득이나 손해를 안겨줄 수도 있는, 호불호가 분명한 모자를 걸쳐 쓰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박해가 벌어진 시대와 국가들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종교인'의 이름으로 사회에 던져졌던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듭해서 쌓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갈수록 비종교인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는 이와 관련된 비중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때론 이름이 비슷하단 이유만으로, 부도덕한 종교인들이 차곡차곡 적립한 논란에 대한 빛까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신대를 지원하고자 한

다면, 응원과 격려만 건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신대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이 겪는 사회적 시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인식이 떨어지게 된 것에는, 역설적으로 사회가 기독교에 거는 높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선을 따르다 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독립과 해방에 관련된 사람도 많았고, 좋은 싫든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부채가 쌓여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진 고생은 물론이고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고, 가혹한 처우 앞에서도 굴하길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지를 생각하여 보면, 이들은 정말로 기특한 자녀일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주는 그 어떤 공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우위였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들이 모여들어 토대가 되었기에 오늘날의 사회는 믿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까지 오게 된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진작에 자신의 이름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마태10:22)."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10:32)."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으로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지킴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짊어지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다리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팔다리로 지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나 신앙의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시기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 분의 자녀임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서로에게 성숙하고 선량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편을 섭시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신 그분을 위해서.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19편 49-72절

제목 : 주님의 말씀을 감사로 따르자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93 342 449 322

1. 내용관찰(What)

r(자인) - 주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n(혜트) -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m(테트) -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인 주님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2. 내용의 의미(Why)

주님께서 주신 법이 저의 삶에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3. 의미의 적용(How)

1) 주님의 규례를 기억하자.

2) 주님의 말씀을 지키자.

3)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배우자.

열매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7)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는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뿌리고 가꾸는 수고가 있었다면 기쁨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126:6)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성장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이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씨앗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밭에 심고 가꾸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물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주는 것만으로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알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심는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으나 그 열매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열매를 취할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면 탐욕이 스며듭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생깁니다. 자녀를 부모의 생각대로 키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런 양육 방법은 열매를 얻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자녀에게 맺힐 열매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대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잔치에 부모는 초대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땀을 흘린 수고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전3:8). 열매를 취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5 : 3-10
2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7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민수기 20 : 1-13
382

설교자
사랑방

“ 개혁,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종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때에 항상 신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개혁,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백성들의 불만과 하나님의 지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회중과 가축 떼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12b>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잃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12>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는 감정을 담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12>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 즉 감정을 다스리고 신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적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신앙과 감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성숙에 장애가 되고,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의 성숙에 장애가 됩니다. 그 결과 맡겨진 일, 예배와 모임 참석, 헌금, 심지어 교회를 결정하는 일들을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을 다스리고 신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종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기온차가 심한 무림리에 드디어 찬바람이 술술 불어옵니다. 신나게 뛰어 놀던 친구들의 코에서 콧물이 나거나 힘들어해서 집에서 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는 적어졌지만 곳곳하게 평소에 하지 않는 장애물 넘기 놀이를 하면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10월에는 생일인 친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카드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받을 친구를 생각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과 글을 쓰는데 아이들은 참 진지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카드를 그리는데 놀고 싶다고 투덜대며 대충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놀다가 쓰는 거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참고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생일카드는 생일자를 위한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멋진 선물입니다.

가을비가 너무 와서 언제 밖에서 놀았는지 기억도 안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짙은 햇볕이 우리를 비춰줘서 신나게 밖에서 놀았습니다. 공동체 한 바퀴를 돌며 산책도 하고, 그 동안 돌보지 못한 밭에서 가지도 따고, 하고 싶었던 모래놀이 등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멋지게 변하고 있는 가을을 만끽하며 꾸러기는 즐겁게 지냅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주간 코로나 예방으로 월~목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고 금요일 오전에 도보여행 예행 연습을 다녀 왔습니다. 맑은 가을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한 예행연습이 힘들긴 하지만 어찌 다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께 인사는 잊지 않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맛난 간식 봉지와 물병에 물을 담고 출발합니다. 줄 맞춰 선 후 학교를 한바퀴 돌고 출발~ 하늘도 예쁘고 들판에 벼들도 노랗게 익어 고개를 숙여 참 아름다웠고, 산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우리의 걸음을 덜 힘들게 합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가 신발이 부적절한지, 가방이 어떤지, 옷이 적당한지 체크를 합니다.

출발 소리에 선생님께 얼마나 남았는지 아이들이 계속 물어 보지만 선생님들은 다 왔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 아이들이 익숙한 길이 나오니 안심을 합니다. 어느 친구의 시계에 2만보가 찍혔습니다. '엄청 걸었으니 축구는 안하겠지' 라는 선생님의 생각은... ㅎㅎ~ 점심 종소리를 못 듣고 열심히 ... 이번 도보여행은 경북 울진군 해파랑길을 걷습니다. 가기 전까지 몸 관리 잘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연습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한창 쌀쌀해져가는 중에 지난 주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보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다음이었기에, 집에서 잘 휴식하는 시간으로도 보냈길 바랍니다. 아침에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기 위해 꼬박꼬박 일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더구나 이번 주간엔 새벽기도 또한 온라인으로 있었기에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중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을 끝까지 잘 마쳐서 참 대견합니다. 공동심화학습의 한 주제를 마무리했고, 이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불편했던 만큼, 이번에 등교하면서 지낼 때에는 더욱 신나고 즐겁게 지낼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면 힘대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나가는 멋쟁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기독교 교육주간 새벽기도회

10월 3째주, 교육 주간에는 새벽기도회가 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사랑방의 지체들, 종로에서의 새벽기도회를 추억해 본다.

그때는 교인들이 젊어서, 열정과 교회 사랑이 엄청났었다.

새벽이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자는 아이들을 들쳐 없고, 이불에 둘둘 말아 차에 태우고 달려왔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을 옆에 누이고 기도를 했다.

서울이라고 가깝게 집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멀리서 살았는데 그 새벽 추운날씨에도 모두가 달려와 기도회에 참여했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종묘 담장쪽 넓은 공터에서 발을 동동구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때의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었고, 잘 자란 청년들이 되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무림리에서의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열정과 교회 사랑이 엄청났다. 무림리에서는 거꾸로 서울에 사는 지체들이 새벽을 뚫고 무림리를 향해 달려왔다. 무림리의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찬 도로를 조심조심해가며 달려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했었다.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 새벽기도회가 담당교역자와 예배 준비하는 몇 사람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으로 전략해 버린 주일예배와 새벽기도회, 방모임, 수요기도회. 다시 옛날의 그 열정과 사랑이 그립다.

빈자리를 언제나 채울수 있을까? 예전과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기도해 본다.

그루터기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골로새서 1장 9~11절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이티를 위한 기도>

지난 16일 한낮에 아이티에서 갱단이 미국과 캐나다 선교단 17명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며 억류 중에 있습니다. WSI에 따르면 피랍자 중엔 8개월 아기와 3살, 6살, 14살, 15살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암살과 대규모 강진으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하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아이티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을 위한 기도>

(1)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사역에 애쓰고 있는 목사님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3) 탈북민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확장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추워지는 날씨에 무림 사랑방 어른들 건강 하실 수 있도록

(2)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3) 교육주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최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바짝 여미게 됩니다. 지난 주 무림리는 영하로 떨어진 날도 있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공동체 학교는 주초에 온라인으로 지냈습니다. 금요일에 꾸러기 학교는 7세 아이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다음 주에 있을 도보여행을 대비하여 여행연습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다같이 고구마 수확하는 작업을 함께하였습니다. 꽤 큰 고구마가 나올 때에는 아이들이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작업이라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농사도 겨울 맞이를 점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잘 준비하여, 모두가 마음 따뜻한 시간으로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